

'바르게 살자' 조형물 제막식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 하송우리사거리에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9월26일 오전11시 하송우리사거리에 '바르게 살자'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은 법이 있어도 무질서한 사회, 도덕이 있어도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사회를 바르게 사는 사회로 바꾸기 위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의와 질서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대회사로 통해 이병업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장은 "우리가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의 부기가 흔들려 결

국 부유하는 연꽃처럼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무질서를 타파하고 국민의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맑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600여명 회원의 숙원인 뜻깊은 조형물 제막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 앞서 조형물 설치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용철 소흘읍 위원장 ▶라



바르게살기운동포천시협의회(회장 이병업)는 9월26일 오전11시 하송우리사거리에 바르게 살자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다.

득현 일동면위원장(이상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회장 감사패) ▶조성욱 포천시협의회 감사 ▶김창성 내촌면위원장(이상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장 감사패) ▶이병 석화동면 대표 ▶이태진

(주)한영화학 대표(이상 포천시시장 감사패) ▶양한조 (주)삼인 대표 ▶이정희 (주)우림섬유 대표(이상 포천시의회 의장 감사패)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건강정보 강의 및 연금제도 홍보 나서

국민연금공단 포천시지사 군내면 직두리에서

국민연금공단 포천시지사(지사장 박영호)는 9월23일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버섯정보화마을)에서 복지서비스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 건강 및 노후설계 서비스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지침과 관련한 건강정보 등 집합강의 및 시술이 있었고 이어서 연금제도를 비롯한 일자리 정보, 재무설계 등 노후설계 서비스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 형태로 제공되었다. 이 행사는 연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나아가 가입자들의 노후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와 협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네

크워크를 형성하고 국민연금공단 포천시지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건강, 노후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이 동행사의 목적이다.

특히, 수지침 강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복지연대사업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항상 생활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국민연금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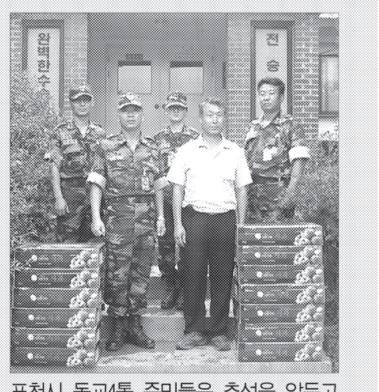
동교4통 주민들 부대에 선물 전달

부대의 경로효친사상 실천에 감사의 뜻으로

평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상을 마련해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는 부대장병들에게 추석명절을 맞아 사과 10박스를 전달해 훈훈한 이웃간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포천시 동교4통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마을 인근에 있는 제606경자대대(대대장 최갑생)를 방문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과 10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뜻하지 않게 선물을 받은 최갑생 대대장은 "평소 지역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뿐인데 선물을 받고 보니 더욱 잘해 드려야겠다



포천시 동교4통 주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마을 인근에 있는 제606경자대대를 방문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과 10박스를 전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마을 어른들이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린이집 원생 소방안전교육

포천소방서, 가산어린이집 60여명 대상

포천소방서(서장 임정호)는 9월23일 가산어린이집 원생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119에 어린이들이 직접 신고시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9신고체험 및 물소화기 사용체험 등을 실시했다.

포천소방서는 연중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포천소방서 홈페이지(http://www.pochon119.or.kr/) 또는 서면(유선)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9월23일 가산어린이집 원생6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회원간 화합과 우정 나뉨

포천시 통·리장연합회 2008 워크샵

신뢰와 화합, 혁신을 위한 '2008 포천시 통·리장 연합회(회장 이창효) 워크샵이 9월 25일 내촌면 베어스타운 타이콘도 대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샵은 서장원 포천시장을 비롯해 김영우 국회의원,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 김성남, 김중천, 강태선 의원과 통·리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1부 외부강사의 특강에 이어 2부



2008 포천시 통·리장연합회 워크샵이 9월25일 내촌면 베어스타운 타이콘도 대회실에서 개최됐다.

행사로 베어스타운 운동장에서 14개 읍면별 축구대항전이 열려 회원간 화합과 우정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SSAY

기타 줄 사랑



김미경 주부영어기자단 부단장

"선생님, 너무 더워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목랄라요." 일찍 와서 뛰어 놀던 아이들이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문을 쏟아냅니다. "화장실 갈 사람은 빨리 다녀오고 선생님! 사무실에 올라가서 물 좀 가져 올 테니 그동안 배운 것 연습하고 있더라." 저는 2층 관리 사무실에 가서 물 컵을 챙기고 큰 물통에 얼음을 가득 채운 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듯 물 컵을 집어 들고 서로 얼음을 먹으며 아우성을 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물고루 물을 나누어주죠.

이렇게 한 바탕 소동을 치르고 수업을 시작할라 하면 아이들의 주문이 다시 쏟아집니다.

"선생님 제 기타 소리가 이상해요." "선생님 제 기타 줄 좀 맞춰주세요." 다시 경쟁하듯 자기 기타를 저에게 밀어 놓습니다. 순식간에 제 앞에 죽 쌓인 기타들...

저는 기타 줄을 맞춰서 하나 하나 아이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동안 아이들은 저에게 불평도 많고 질문도 참 많아요. "선생님, 코드가 잘 안 잡혀요. 이걸 왜 꼭 이렇게 잡아야 하나요?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텐데..." "기타를 이렇게 세워서 치면 더 편한 거 같은데 왜 꼭 옆으로 쳐야 돼요?" 아이들이 잔란치며 기껏 맞춰놓은 기타 줄을 갑자기 줄을 끊어 버립니다.

저는 또다시 기타 줄을 갈아주느라 씨름해야 하죠. 우여곡절 끝에 수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리듬을 가르쳐주고 하나 하나 제대로 하는지 점검을 하고 리듬에 맞추어 노래연습을 시킵니다. 아이들은 제 가 노래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어 따라 부르고 어떤 아이는 목을 앞으로 쭉 빼고 리듬에 맞추어 곡으로 오리 춤을 춥니다.

그런 아이들 모습에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수업을 멈추고 말죠. 그러면 아이들은 재미있는지 노래소리를 흉내내며 더 잔란을 칩니다.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또다시 저를 불러옵니다.

"선생님 쉬는 시간 좀 주세요." "쉬는 시간도 없이 수업을 어떻게 해요?" "좋아,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은 좋아라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갑니다.

나가서 배드민턴 치고, 화장실 다녀오고, 칠판에 나서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주고받고, 게임하고.....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휴식 끝, 10분 지났어."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다시 자리에 앉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산만하여 집중하려 들지 않고 잘 떠들고 장난도 잘 칩니다.

이날 때 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죠. "지금부터 배운 것 잘 하는 순서대로 보내준다!! 선생님이 통과시켜 준 사람은 집에 보내준다. 나머지 공부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아이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입니다. 서로 선생님!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며 틀

리지 않고 잘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착실하게 잘하는 선주와 여학생들을 먼저 통과시켜주면,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듯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통과시켜주는 동안 마지막에 남은 아이는 애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저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잘 하는 걸 확인한 후 통과시켜줍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작웃이 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전정처럼 수업을 끝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돌아서는 제 얼굴에 미소가 갈수록 띄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착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 제 칭찬 한마디에 아이들이 얼골빛이 달라집니다.

송우리에 있는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는 초·중학생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의 모습입니다.

"선생님께 기타강의를 들으면 모두 선생님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기타 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은 기타를 메고 계신 모습이 너무 어울러요."

선생님! 수강생들의 한 마디에 제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지죠. "누구 남편은 생일 선물로 차도 사줬는데 나는 기타 하나 선물로 안 사주나..." "그걸 기다리느니 차라리 은행을 털어!" "은행은 지금도 털지..." "..... 하하하하..... 그렇지. 은행은 지금 털 시기야... 맞아...그게 근데 배새가 좀 심해서... 하하하하... 호호호..." 성인남 수강생 아주머니들의 주고 받는 이야기로 모두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선생님, 올 가을에 우리 기타반 전원이 함께 모여 수련회 겸 야외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노래도 함께 부르구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타반주에 맞추어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과의 사랑도 키울 수 있는 가족 같은 저의 공간...저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오는 10월 중순 우리 기타반 수강생들과 제가 꾸미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어떨까요? 통기타와 함께 하는 사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대의 茶 문화 15

세계 최고 장수 지역은 차(茶) 생산지



황무연 지형대표

세계 여러 나라에 차(茶)문화를 전파하는데 기여한 지역은 영국이 식민지로 통치하던 인도의 역할이 크고, 중국의 차(茶)무역과 더불어 명대(明代)부터 시작하여 청대(清代)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은 아침에 모닝 티(morning tea)와 오전 11시에 '티 브레이크(tea break)'라고 불리는 차 마시는 휴식시간을 갖고, 점심 식사 후(後)와 오후 4시경에는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를,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한잔의 홍차를 마시며 피로를 푼다.

이렇게 하루에 5번 정도는 홍차(black tea)를 즐겨 마실 정도로 차를 좋아한다.

17세기 중국을 통해 차 문화를 수입하고, 홍차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독특한 차 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영국에서는 주로 인도산 차와 실론(스리랑카)차 중국의 각종 고급 차를 즐겨 마신다. 하루를 차로 시작해서 차로 마감할 정도로 영국은 사람들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차 문화로 유명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인들의 차 문화는 그들의 침착한 성격과 아주 잘 맞아 안개가 잦은 습한 날씨가 영국인들로 하여금 차를 생각나게 하며, 몸 속의 노폐물을 씻어주어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음용수를 끊어 마시는데서 차가 필요해진 것이다.

서구에 차가 처음 전해진 것은 16세기 초, 그러나 17세기에는 차를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기 시작했고(동인도회사 소속의 거머버호호), 19세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아쌈 지방에서 자생하는 값싼 차가 수입되면서 차 문화가 확산되었다.

차에는 명칭도 많다. 일본은 녹차(로쿠차綠茶), 번차(만차番茶), 옥로차(고쿠로차玉露茶), 말차(抹茶), 현미 차(겐마이차玄米茶) 등을, 미국에서는 영국 차 문화와 남미의 차 등과 함께 독일 허브티 등을 즐긴다.

영국에서는 물론 홍차인데, 산지에 따라 명칭을 붙인다. 흔히 아쌈(Assam), 다질링(Darjeeling), 우바(Uva) 등의 이름은 산지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아쌈, 다질링은 산지가 인도 북부 히말라야 지방인 점은 같으나 아쌈은 평원, 다질링은 산악지대에서 재배된다.

아쌈종은 약간 진해서, 오랫동안 우려내지 않는 것이 좋는데 우리나라 보성지방의 차종과 특성이 같다. 근래는 아프리카 케냐산의 차(茶)생산량도 세계발전에 올랐다고 한다.

티벳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고원지대로서 기후가 한랭하고 건조하며, 음식은 육식위주로 과일이나 채소가 적어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성분을 주로 차 잎으로부터 보충하고 있는데, 차마고도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에서는 차를 생명과 직결시 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차 라고 말하며, 연간 1인당 소비하는 양은 15kg으로 차(茶) 소비량이 많은 영국보다 무려 5배나 많다.

티벳 지역의 음차(飲茶) 풍습은 수수차와, 차 그대로 우려 마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중 수수차는 티벳 지방의 독특한 음차 방법으로 담나라 때의 문성공주(文成公主)가 티벳 왕에게 시집은 후 수수차와 손님 접대의 차 문화 예절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테(mate)차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의 동북부에서 자생하는 일렉스 파라과리아렌시스 나무(Ilex paraguariensis)의 잎과 줄기를 가공한 것이다.

미 대륙 발견 전에 이미 원주민들이 마셔온, 이 대륙에서는 남미 산악지대에서 육식 중심의 식사를 했던 목동들의 차로써, 활랑한 땅에서 사르로의 영혼을 공유하는 최상의 우정을 상징하는 마테 컵의 전통으로 남미지방의 정서가 녹아 있는데, 이 역시 티벳 장수의 수수차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티벳 서장(西藏)차자(차)에서 마시는 운남의 보이차(카멜리아시넨시스·camelliasinensis)에 비하여 조성 성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장수 지역은 차(茶) 생산지로서 현지 거주민의 평균 수명이 다른 곳에 비해 길다. 또한 잎에 의한 사망률이 타지역 평균보다 낮다. 따라서 차를 잘 알고 즐겨 마시면 오래 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011-9750-1883

월빙

부사의(不思意)

정통성(正統性)과 정당성(正當性)

정통성은 통시적 개념이고 정당성은 공시적 개념이다

는 것이다. 어떠한 이즘(ism)이나 사상(思想)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널리 풍미(風靡)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나 당위성(當爲性)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만년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시원을 고조선(古朝鮮)에 두고 있다. 후자는 증거(證據)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물론 증거가 있다. 증거는 세 가지로 구분해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신화(神話)이고 둘은 문헌(文獻)에 나타

나 있는 기록(記錄)이며 셋은 역사적인 유물(遺物)이나 유적(遺蹟)이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기록으로 한국역사(韓國歷史)가 있다. 유가(儒家)의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불가(佛家)의 일연이 쓴 '삼국유사' 선가(仙家)의 북애노인이 썼다고 하는 '구원사화'가 있다. 신화로는 개국신화(開國神話)인 단군신화(檀君神話)가 있다. 그리고 유물과 유적으로는 동북삼성(東北三省)과 간방(良方)에 널려있는 고조선의 흥산문화(興山文化)가 있다.

단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곰의 후예(後裔)로 표현하고 있

다. 문자대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신화는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전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실제(實體)가 없는 신화는 탄생(誕生)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체가 세월의 때가 묻으면서 신화로 둔갑(遁甲)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常識)의 언어를 초월(超越)해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식의 언어를 초월해 표출(表出)되는 순간 신화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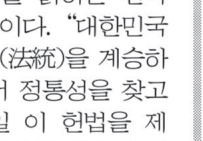
동북공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조선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 신 연대가 훨씬 더 올라가는 유구(遺構)와 유물(遺物)이 발굴되어 덮어버렸다고 한다. 역사적 유물의 연대를 밝힐 때 흔히 타인 소연대측정(炭素年代測定)이라는 것을 한다. 탄소연대측정으로 밝히는 사실은 우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강변(強辯)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적(科學的)으로 밝혀지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否定)할 수 없으니까 덮어버리고 마는 것이

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의견이 분분하다. 1948년과 1919년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형국이다.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유

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

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948년의 의의를 밝히는 건국 헌법 전문(前文)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하여"라는 표현에서 정통성을 찾고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체(政體)는 누가 뭐래도 1948년에 채택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이다.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이념이요 사상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떠받치는 정당성이다. 1919년의 정통성과 1948년의 정당성 속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存在)한다는 말이다.

(011-9262-4491)



이규임 인공생명체학회 회장